2017년 6월 17일 지방직 9급 국어 ⓑ책형 해설

TG교육그룹 관리형 프리미엄 독서실 잇올 국어팀 설승환

오늘 시험보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을 잘 보신 분들께는 큰 축하를,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오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어휘/한자 문제가 너무 많아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우리말 겨루기도 아니고...) 국가직/지방직 모두 어휘/한자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서, 학습의 비중을 어휘/한자 쪽으로 많이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평]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 점수를 주는 쉬운 문제는 거의 없고, 중~중상 이상의 난도를 지니고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시험 내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출제영역	문항 수	문항	난이도	문항 내용
국어문법	3문항	8	하	통사론_높임법
		14	상	형태론_동일한 품사 찾기
		19	중	형태론_대명사의 쓰임 파악
어문규정	2문항	1	중	한글 맞춤법_어법에 맞는 단어
		12	상	표준어 규정_표준어 찾기
어휘	4문항	2	중상	관용구의 의미
		3	중	단위를 나타내는 말의 의미
		10	상	김유정의 '만무방' 속 고유어의 의미
		16	하	유의어
한자	2문항	6	최상	한자 표기
		13	상	한자 표기
문학	4문항	4	중상	고전시가_한시_허난설헌의 '봄비'/감정이입
		5	중	고전시가_시조_정철의 시조/작품 감상
		7	중	현대시_정지용의 '인동차'/어휘 융합문제
		11	상	고전시가_시조_변계량의 시조/한자 융합문제
비문학	4문항	9	중상	입장(견해) 파악하기
		15	중상	문구의 맥락적 의미 파악하기
		17	중상	언급하지 않은 내용 찾기
		20	중	논증 구조 파악하기
쓰기	1문항	18	중하	개요를 바탕으로 주제문 찾기

<각 문항별 해설>

문 1. 밑줄 친 말이 어법에 맞는 것은?

① 바닷물이 퍼레서 무서운 느낌이 든다.
② 또아리 튼 뱀은 쳐다보지 마라.
③ 머릿말에 쓸 내용을 생각해 둬라.
④ 문을 잘 잠궈야 한다.

[정답] ①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용언 '퍼렇다'의 어간 '퍼렇-'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서'가 결합하면 'ㅎ' 불규칙이 일어나므로 '퍼레서'로 표기한다.

[오답 풀이]

② 표준어 규정 제3절 제14항에 의하면, '또아리'가 아닌 '똬리'가 표준어이다.

③ '머리말'은 [머리말]로 발음하는데, 이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④ '잠그다'의 어간 '잠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야'가 결합하면 어간 '잠그-'에서 '-'가 탈락하여 '잠가야'가 된다.

[한 줄 평] 용언의 규칙/불규칙 활용은 국어문법과 한글 맞춤법 모두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사이시옷 표기와 표준어 규정도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니, 꼼꼼하게 학습해 놓자.

문 2. 밑줄 친 말의 의미는?

> 몇 달 만에야 말길이 되어 겨우 상대편을 만나 보았다.

①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②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
③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④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

[정답] ② / 난이도 중상

[정답 해설] 당황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밑줄 친 '말길이 되어' 뒤에 '겨우 상대편을 만나 보았다'를 통해 '말길이 되어'의 의미가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가 됨을 맥락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말꼬리를 물다'의 의미이다.
(예) 그는 내 말꼬리를 물어 계속 설명해 나갔다.

③ '말이 있다'의 의미이다.
(예) 이미 다 말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너 혼자만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④ '맛을 붙이다'의 의미이다.
(예) 그는 요즘 등산에 맛을 붙여 매주 일요일마다 등산을 한다.

[한 줄 평] 관용구의 주요 의미들은 평소에 학습할 때 잘 확인해 두자. 이 문제는 위의 해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맥락적으로 답을 고를 수는 있었다.

문 3.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 쌈 : 바늘 ( ) 개를 묶어 세는 단위
> ○ 제(劑) :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 한 제는 탕약(湯藥) ( ) 첩
> ○ 거리 :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 ) 개

① 80　② 82
③ 90　④ 94

[정답] ④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바늘 한 쌈 = 24개, 한약 한 제 = 탕약 20첩, 오이/가지 한 거리 = 50개

[오답 풀이] (생략)

[한 줄 평] 기출문제 속에 등장한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들의 개수를 잘 확인하고, 암기를 잘 해 두도록 하자.

문 4. 밑줄 친 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 ㉠ 春雨暗西池 /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한데
> 輕寒襲㉡ 羅幕 /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 愁依小㉢ 屛風 /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 墻頭㉣ 杏花落 /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 난이도 중상

[정답 해설] 제시된 시는 허난설헌의 '봄비'라는 한시이다. '발문'의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가 당연히 포인트이다. 봄비가 내리고 찬바람이 스며드는 상황에서 화자는 시름에 겨워하는데, 그때 화자는 작은 병풍에 기대어 '떨어지는 살구꽃'을 보고 있으므로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지닌 화자'와 '떨어지는 살구꽃'이 동일시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생략)

[한 줄 평] 문학 문제의 주요 출제 포인트인, 작품 감상 능력을 물어 본 문제

문 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재 너머 셩권농(成勸農) 집의 술 닉닷 말 어제 듯고
>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투고
> 아히야 네 권농 겨시냐 뎡좌슈(鄭座首) 왓다 ᄒᆞ여라

① 화자는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살고 있다.
② '박차'라는 표현에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③ '언치 노하'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④ '아히'는 화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이면서도, 대화체로 이끄는 영탄적 어구이다.

[정답] ③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현대어 풀이]
고개 너머 사는 성권농(성혼) 집의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
누워 있는 소를 발로 차서 일으켜 언치* 얹어서 눌러 타고
아이야, 네 권농 계시냐? 정 좌수 왔다고 여쭈어라.

* 언치 : 말이나 소의 안장 밑에 까는 방석/담요

성권농 집의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듣고 누운 소를 발로 박차 성권농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볼 때, 화자가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시조에서 '소를 타고 성권농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속도감 있는 전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화자가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고 했다'는 것이 문맥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성권농 집의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듣고 성권농의 집으로 찾아 가는 것을 볼 때, 화자가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누워 있는 소를 발로 '박차'는 것을 통해,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④ '아이'는 '권농'에게 화자인 '정 좌수'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존재이다. 그리고 화자가 '아이야'라고 말을 건네고 있으므로 대화체가 쓰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아이야'는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영탄적 어구임을 알 수 있다.

[한 줄 평] 주요 시조 작품들은 꿰차고 있을 정도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문 6. 밑줄 친 말을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 ○ 지루한 ㉠장광설로 인해 관중들은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 ○ 정보화 사회일수록 ㉡유언비어가 떠돌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 ○ 잘못을 저질렀다면 궁색한 ㉢변명보다 정직한 시인이 현명한 대응이다.

	㉠	㉡	㉢
①	長廣舌	流言蜚語	辨明
②	長廣舌	流言非語	辯明
③	長廣說	流言蜚語	辯明
④	長廣說	流言非語	辨明

[정답] ① / 난이도 최상

[정답 해설] '장광설(長廣舌)'은 '길고 넓은 혀'라는 뜻으로, 1) 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2)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을 의미한다.
'유언비어(流言蜚語/흐를 ㉮, 말씀 ㉯, 바퀴 ㉰, 말씀 ㉱)'는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이라는 뜻이다.
'어떤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밝힘.'의 뜻을 지니는 단어는 '辨明/분별할 ㉲, 밝을 ㉳'이라고 표기한다.
②, ③번의 '辯明/말씀 ㉲, 밝을 ㉳'은 '말로 풀어 밝힘.'이라는 뜻이다.

[오답 풀이] (생략)

[한 줄 평] 이런 문제들은 정말 어쩔 수 없다. 해도해도 너무한 문제... 아마 다 틀렸을 것이다. '유언비어'와 '변명'의 한자를 알고 있었다면 정답은 고를 수 있었겠지만... 이번 시험 최고난도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아마도 100점 방지용 문제였던 듯하다.

문 7.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老主人의 腸壁에
無時로 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여 붉고,

구석에 그늘 지여
무가 순 돋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山中에 冊曆도 없이
三冬이 하이얗다.

— 정지용, 「忍冬茶」 —

① 산중의 고적한 공간이 배경이다.
② 시각적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③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④ '잠착하다'는 '여러모로 고려하다'의 의미다.

[정답] ④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잠착하다'는 '참척하다'의 원말로,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똘하게 쓰다'라는 뜻이다.

[오답 풀이]
① 5연의 '산중에 책력도 없이 삼동(겨울)이 하이얗다.'를 통해 산중의 고적한 공간이 배경임을 알 수 있다.
② 인동 삼긴 물, 불, 하이얗다 등 시각적 이미지의 대비가 사용되고 있다.
③ 시각적 이미지가 주로 사용되었으므로,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다.

[한 줄 평] 정답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①/②/③번을 쉽게 지울 수 있었던 문제
문학 문제와 어휘 문제가 융합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자.

문 8.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의 문장을 다음 규칙에 따라 옳게 표시한 것은?

>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로, 높임이 아닌 것은 −로 표시하고 상대 높임의 경우 반말체를 −로, 해요체를 +로 표시한다.

① [주체−], [객체+], [상대−]
② [주체+], [객체−], [상대+]
③ [주체−], [객체+], [상대+]
④ [주체+], [객체−], [상대−]

[정답] ① /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에서
주어가 ‘내’이므로 주체 높임은 실현되지 않았다. [주체−]
객체가 ‘선생님’이므로 조사 ‘께’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였다. [객체+]
상대가 ‘숙희’이므로 반말체(해체)를 사용하였다. [상대−]

[오답 풀이] (생략)

[한 줄 평]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을 판별해내기만 하면 쉽게 맞힐 수 있었던 문제

문 9. '시'에 대한 견해 중에서 밑줄 친 칸트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은?

> 미적인 것이란 내재적이고 선험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 삶의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가치,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미(美)는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도 일견 타당하지만,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도 타당하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 이름 모를 곡을 듣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순수미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곡이 독재자를 열렬히 지지하기 위한 선전곡이었음을 안 다음부터 그 곡을 혐오하듯 미(美) 또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① 시는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하여 감상해야 한다.
② 시는 사회의 모순을 고발할 수 있고, 개혁의 전망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를 읽으면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④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알아야 한다.

[정답] ① / 난이도 중상

[정답 해설] 셋째~여섯째 줄을 독해하는 것이 포인트였다. 미는 어떤 맥락으로부터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하여 칸트는 자율적 견해를 지녔다고 하고, 톨스토이나 마르크스는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켰다고 하고 있다. 이는 톨스토이/마르크스가 미에 대하여 타율적 견해를 지녔다는 것이고, '미'를 다른 분야와 연관시킨 것이 미에 대한 타율적 견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율적 견해는 '미'를 다른 분야와 연관시키지 않는, 그 자체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이것이 맨 첫 줄 '미적인 것이란 내재적이고 선험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에 잘 나타나 있다. 선택지 중에서, 시를 내재적으로 바라 본 것은 ①번이다. 시의 구성 요소인 시어/운율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②, ④는 시를 '사회'와 연관지어, ③은 시를 '시인'과 연관지어 바라 본 것이다.

[한 줄 평] 평소 출제되던 유형과 달리, 독해력을 세세하게 물어서 많이 당황하셨을 듯

문 10. 밑줄 친 말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군치고 송이 ㉠파적 나올 놈은 생겨나도 않았으리라. 하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함에는 먹을 것이 더러 있느냐면 있기는커녕 부쳐 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방은 있대야 남의 곁방이요 잠은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벼를 털 텐데 일 좀 와 해달라는 걸 마다하였다. 몇 푼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보다는 송이가 좋았다. 왜냐면 이 땅 삼천리강산에 늘여 놓인 곡식이 말짱 뉘 것이람.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냐.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 두고 일이 다 무슨 ㉢난장 맞을 일이람.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리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세 번이나 걸려서 구메밥으로 ㉣사관을 틀었다마는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몫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일반…….
>
> — 김유정, 「만무방」 중에서 —

① ㉠ : 심심풀이
② ㉡ : 안잠
③ ㉢ : 몰매
④ ㉣ :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정답] ② / 난이도 상

[정답 해설] '새우잠'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불편하게) 자는 잠'이라는 뜻이고, '안잠'은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뜻이다.

[오답 풀이]

① '송이 파적'은 '송이'와 '파적'이 합쳐진 것으로, 심심풀이로 송이버섯을 따먹는 행위를 말한다.

[한 줄 평] 6번 문제에 이은 또 다른 노답 유형ㅠㅠ 해도해도 너무한 문제... 김유정 소설은 순우리말이 많이 쓰여서 '김유정 어휘사전'이 따로 있을 정도이긴 합니다만...

문 11. 다음 시조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 내히 죠타 ᄒᆞ고 놈 슬흔 일 ᄒᆞ지 말며
> 놈이 ᄒᆞᆫ다 ᄒᆞ고 義 아니면 좃지 말니
> 우리는 天性을 직희여 삼긴 대로 ᄒᆞ리라

① 率性　② 善交
③ 遵法　④ 篤學

[정답] ① / 난이도 상

[현대어 풀이]
내게 좋다 하고 남 싫은 일(싫어하는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고 의 아니면(옳은 일이 아니면) 좇지 말라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삼긴 대로(그대로) 하리라

'천성'을 지키자는 것이 주제이므로,
'천성을 좇음.'의 의미를 지닌 '率性/거느릴 ㉥ 성품 ㉲'이 정답이다.

[오답 풀이]
② '善交/착할 ㉣ 사귈 ㉶'는 '잘 사귐'이라는 뜻이다.
③ '遵法/좇을 ㉦ 법 ㉱'은 '법령을 좇음'이라는 뜻이다.
④ '篤學/도타울 ㉤ 배울 ㉵'은 '학문에 충실함'이라는 뜻이다.

[한 줄 평] 시조의 주제를 한자어와 연결하여 생각해야 했던 고난도 문제

문 12. 밑줄 친 말이 표준어인 것은?

① 큰 죄를 짓고도 그는 뉘연히 대중 앞에 나섰다.
②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갖가지 양념을 뒤어내고 있었다.
③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이제야 깨단하게 되었다.
④ 그 사람은 허구헌 날 팔자 한탄만 한다.

[정답] ③ / 난이도 상

[정답 해설] '깨단하다'는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닫거나 분명히 알다.'라는 뜻을 지닌 표준어이다.

[오답 풀이]

① '뉘연히'는 '버젓이(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의 잘못이다.
② '뒤어내고'는 '뒤져내고(샅샅이 뒤져서 들춰내거나 찾아내다)'의 잘못이다.
④ '허구헌'은 '허구한(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의 잘못이다.

[한 줄 평] 사실 표준어 규정보다는, 어휘 문제에 가까웠던 고난도 문제

문 13. 밑줄 친 말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지조란 것은 순일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 위의(威儀)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 강도(强度)를 살피려 한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 일조(日照)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
> – 조지훈, 「지조론」 중에서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 난이도 상

[정답 해설] ④번 선택지에 쓰인 '日照/해 ㉰ 비출 ㉾'는 '햇볕이 내리쬠'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일조'가 쓰인 맥락을 볼 때, '자기의 명리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하루아침에 함정에 빠뜨리고'의 의미이므로, '一朝/한 ㉰ 아침 ㉾'로 표기되는 것이 옳다.

[오답 풀이]
① 確執/굳을 ㉦ 잡을 ㉱ :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함.
② 威儀/위엄 ㉲ 거동 ㉰ :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③ 强度/강할 ㉶ 법도 ㉻ : 강렬한 정도

[한 줄 평] 한자 문제의 연속... 이 문제 보시고 많이들 화나시지 않았을까?

문 14. 밑줄 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개나리꽃이 ㉠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친구들과 ㉡ 찍은 사진은, 그때 느꼈던 ㉢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 충만한 봄의 기운, 친구들과의 악의 ㉤ 없는 농지거리, 벌들의 잉잉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 난이도 상

[정답 해설] 밑줄 친 말은 모두 용언으로, ㉠ '흐드러지게'는 '매우 탐스럽거나 한창 성하다.'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흐드러지어라, 흐드러지자' 등 명령형/청유형 불가, '흐드러지는/흐드러진다'와 같이 현재형 불가함.), ㉡ '찍은'은 '어떤 대상을 촬영기로 비추어 그 모양을 옮기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찍어라, 찍자' 등 명령형/청유형 가능, '찍는다'와 같이 현재형 가능), ㉢ '설레는'은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리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설레어라, 설레자' 등 명령형/청유형이 불가하지만, '설레는/설렌다'와 같이 현재형 가능), ㉣ '충만한'은 '한껏 차서 가득하다.'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충만해라/충만하자'와 같이 명령형/청유형 불가, '충만하는/충만한다'와 같이 현재형 불가), ㉤ '없는'은 무조건 형용사이다('-는'이 결합해 있기는 하지만 '없어라/없자'와 같이 명령형/청유형 불가, '없는다'와 같이 현재형 불가함.).

[오답 풀이] (생략)

[한 줄 평] 동사/형용사 구별의 핵심 기준을 잘 알고 있도록 하자. ㉢ 때문에 꽤 어려웠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 15.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하며, 다만 이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소수 특정 부분의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정착은 연구의 정밀화, 집중화 등을 통하여 자기 지식을 확장해 가며 차츰 폭 넓은 이론 체계를 구축한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쿤은 '정상 과학'이라고 부른다.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되었으므로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상당히 심오한 문제의 작은 영역들에 집중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자연의 어느 부분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각종 실험 장치들도 정밀해지고 다양해지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특정 기법과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연구는 이제 혼란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론과 자연 현상을 일치시켜 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정상 과학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 사고방식과 관습, 기법 등이 하나의 기반으로 통일돼 있다는 것일 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수하다.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연구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좇아가지는 않으며, 다만 연구의 세부 내용이 좀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연구가 고작 예측된 결과를 좇아갈 뿐이고, 예측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규정되는 상태에서 과학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쿤은 이 물음에 대하여 '수수께끼 풀이'라는 대답을 준비한다. 어떤 현상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예측이 달성되는 세세한 과정은 대개 의문 속에 있게 마련이다. 자연 현상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으로서의 예측 결과와 실제의 현상을 일치시켜 보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기기적, 개념적, 수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수께끼 풀이이다.

①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여 이론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
②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다.
③ 이 시기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나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된다.
④ 예측된 결과만을 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

[정답] ② / 난이도 중상

[정답 해설] 2문단 첫째 줄~셋째 줄의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쿤은 '정상 과학'이라고 부른다.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되었으므로~'와 밑줄 친 부분 바로 다음 문장에서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통해,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번 선택지를 통해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여 이론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3문단에서 셋째 줄~다섯째 줄에서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닌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④ '정상 과학의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4문단 다섯째~여섯째 줄에서 '이러한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진 후, 그에 대해 글쓴이는 쿤이 '수수께끼 풀이'라고 대답을 준비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 줄 평] 이번 시험 독해 문제들, 전반적으로 만만치 않은 듯하다.

문 16. '잡다'의 유의어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어	예문
죽이다	㉠
쥐다	㉡
어림하다	㉢
진압하다	㉣

① ㉠: 할아버지는 돼지를 <u>잡아</u> 잔치를 베푸셨다.
② ㉡: 그들은 멱살을 <u>잡고</u> 싸우고 있다.
③ ㉢: 술집 주인은 손님의 시계를 술값으로 <u>잡았다</u>.
④ ㉣: 산불이 난 지 열 시간 만에 불길을 <u>잡았다</u>.

[정답] ③ /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어림하다'의 의미를 지닌 '잡다'의 예문으로는
'이 책들을 권당 5,000원으로 <u>잡아도</u> 100권이면 50만 원이다.'
'수험 준비 기간을 세 달로 <u>잡은</u> 계획은 내가 보기에는 무리이다.'
등이 있다.
③번 선택지의 '잡다'의 의미는 '담보로 맡다'의 뜻이다.

[오답 풀이] (생략)

[한 줄 평] 이번 시험에서, 그나마 가장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

문 17. 다음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제일 높게 들어온 곳과 썰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간대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 중 한 곳이 바로 이 조간대이다.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내야 한다. 또한 빗물이라도 고이면 민물이라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하며,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는 염분으로 범벅된 몸을 추슬러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만이 조간대에서 살 수 있다.
>
> 조간대는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뉜다. 바다로부터 가장 높은 곳인 상부는 파도가 강해야만 물이 겨우 닿는 곳이다. 그래서 조간대 상부에 사는 생명체는 뜨거운 태양열을 견뎌내야 한다. 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 그런데 물이 빠져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해도 파도에 의해 어느 정도의 수분은 공급된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하부는 간조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에 잠겨 있다. 땅위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선 다소 안정적이긴 해도 파도의 파괴력을 이겨내기 위해 강한 부착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이 쉽지 않은 곳이다.
>
>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 이들은 상당 시간 물 밖에 노출되어도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패각과 덮개 판을 꼭 닫은 채 물이 밀려올 때까지 버텨낼 수 있다.

① 조간대에서 총알고둥류가 사는 곳은 어느 지점인가?
②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③ 조간대에서 높이에 따라 생물의 종이 수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정답] ② / 난이도 중상

[정답 해설] 윗글에서는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3문단 둘째 줄~넷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 첫째 줄~둘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 셋째 줄~여섯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줄 평] 문제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고난도 문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 18. 다음의 개요를 기초로 하여 글을 쓸 때,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론 : 최근의 수출 실적 부진 현상
본론 : 수출 경쟁력의 실태 분석
  1. 가격 경쟁력 요인
    ㄱ. 제조 원가 상승
    ㄴ. 고금리
    ㄷ. 환율 불안정
  2. 비가격 경쟁력 요인
    ㄱ. 기업의 연구 개발 소홀
    ㄴ. 품질 개선 부족
    ㄷ. 판매 후 서비스 부족
    ㄹ. 납기의 지연
결론 :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

① 정부가 수출 분야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내수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③ 기업이 연구 개발비 투자를 늘리고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답] ④ / 난이도 중하

[정답 해설] '최근의 수출 실적 부진 → 수출 경쟁력의 실태 분석 → 분석 결과 요약 및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의 순서로 글을 전개할 것이므로, 이에 어울리는 주제는 ④번 선택지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 ③번은 모두 위 개요의 서론/본론/결론을 아우를 수 없는 내용이다. 모두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19.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그쪽에서 물건 하나를 맡아 주었으면 해요. 그건 ㉡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 저는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당신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을 느껴요. ㉣ 할머니께서는 ㉤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죠. 부디 ㉥ 당신이 할머니가 품었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결코 말씀이 많으신 분은 아니었지요. ㉦ 당신께서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이 거기에 절실히 아로새겨져 있을 거예요.

① ㉠과 ㉢은 1인칭 대명사이다.
② ㉡은 ㉢과 ㉣을 아우르는 말이다.
③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④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답] ③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은 바로 앞 문장에 나온 3인칭 주어인 '할머니'를 반복해서 쓰지 않기 위해 '당신'이라고 쓴 것이므로,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 '그쪽'은 청자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다.
② 우리 할머니의 ㉡ '우리'이므로, ㉣ '할머니'는 아우를 수 없다.
④ ㉤ '본인'은 ㉣ '할머니'를 가리키고, ㉥ '당신'은 청자(㉠)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다.

[한 줄 평] '당신'은 자주 나오는 문법 내용 중 하나이다. 2인칭/3인칭 대명사로서의 쓰임을 잘 파악해 두자.

문 20. 다음 글의 논증 구조를 옳게 파악한 것은?

> ㉠ 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 즉, 동물들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몸짓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을 나타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 ㉢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유사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이거나,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본능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따라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때때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화나 토론이나 회의와 같은 언어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은 논증의 결론으로 주제문이다.
② ㉡은 ㉠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③ ㉢은 ㉠, ㉡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이다.
④ ㉤은 ㉢, ㉣에 대한 근거이다.

[정답] ③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에 대하여 ㉡은 '즉'을 사용하여 재진술하고 있는데, ㉢은 '그러나'를 통해 ㉠과 ㉡을 부정하고 그에 대비되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윗글의 논증 구조에서 결론이 아니다. 결론은 ㉤이다.
② ㉡은 ㉠에 대하여 '즉'을 사용하여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④ ㉤은 ㉢, ㉣에 대한 결론이다.

[한 줄 평] 침착하게 읽으셨다면, 어렵지는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
그런데 마지막 문제여서, 침착하게 풀기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